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관한 연구 — 정서관련어휘를 중심으로*

이만영 · 이홍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형용사 서술구조의 함의적 속성으로 볼 수 있는 정서성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관련 어휘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다른 언어문화권의 많은 연구들은 정서적 속성을 2-9가지의 기본정서로 축약시킬 수 있으며, 몇가지 정서의 분류 및 평가 준거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추출한 72개의 정서관련어휘를 토대로, 자신의 기분상태 평가와 시(詩)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조사자료에 대해 요인 분석과 군집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기본 정서의 수에 대한 엄격한 모수치를 추출할 수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Ekman 등(1987)과 Weiner(1982)의 제안이 대체적으로 일반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형용사의 의미구조에 대한 연구는 Osgood 등(1987)에 의해 체계적으로 언급되었다. Osgood 등은 그의 연구에서 의미 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을 사용하여, 형용사의 의미차원으로 평가(Evaluation), 역능(Potency), 그리고 활동(Activity)의 3차원을 추출하였다. Osgood 등의 연구는 그 후 영어문화권 내에서 다양한 측면의 반복연구(Kuusinen, 1969; Miran, 1969; Osgood, 1964, 1968; Osgood 외; 1957)를 통해서, 그리고 20여개의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의 반복연구를 통해서 그 범문화적 보편성이 보고되었다(Osgood, 1964). 이런 의미의 세차원에 대해, Miran(1964)은 왜 그와 같은 의미구조가 범문화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 그런 의미구조의 기능적, 혹은 본질적 의미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Osgood

(1964)는 그가 제안한 평가, 역능, 활동의 3차원은 형용사내에 함의된 정서적 속성을 의미하며, 이는 Wundt(1907)가 제안한 정서의 세차원과 일대일 대응되는 구조임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Osgood(1969)에 의하면, 결국 형용사 서술어의 의미차원은 정서적 차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형용사의 서술구조가 함의하고 있는 정서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탐색해봄으로써 아직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정서관련어휘의 구조적 특성을 추출하고, 우리말 정서관련 어휘의 구조적 특성이 다른 언어문화권에서 밝혀진 연구와 어느정도 일치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정서의 구조적 체계에 대한 언급은 Wundt(1907)에서 부터 이미 언급되고 있다(Osgood, 1969; Zajonc, 1980). Wundt는 다양한 정서적 경험들을 쾌/불쾌(Lust/Unlust), 흥분/침잠(Erregung/Beruhigung), 긴장/이완(Spannung/Loesung)의 3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가지 질적 차원에 의해 구조화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이의철, 1981). 이런 Wundt의 생각은 Schlosberg(1954), Osgood(1969)에 의해 지지를 받게 되는데, Schlosberg는 안면표정사진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Wundt의 모형을 지지하는 쾌/불쾌(Pleasantness / Unpleasantness), 주의/거부(Attention / Rejection), 그리고 활성화(Sleep / Tension)의 3가지 차원을 추출하였다. 또한 Osgood 등(1957)은 형용사의 의미구조에 관한 연구를 통해 평가(Evaluation), 역능(Potency), 그리고 활동(Activity)의 3가지 차원을 추출하였는데, 이런 차원들이 형용사에 함의된 정서적 속성들을 의미하며, 이는 Wundt, Schlosberg 등이 제안한 3가지 차원에 각각 대응되는 개념임을 주장하였다(Osgood 1969).

이와 같은 정서의 차원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Lazarus, 1966; Pribram, 1940; Weiner, 1980 등)이 다른 개념적 틀을 제안하기는 하지만, 앞서의 차원과 배타적인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의 제안은 정서경험/표현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중추신경계의 활성화 양상(Pribram)이나 정서적 경험을 야기시키는 조건과 적응/대처기제(Lazarus, Weiner) 등에 관한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정서적 차원에 대해서는 Wundt의 제안과 그것을 지지하는 연구들(Abelson과 Sernat, 1962, Russell, 1980 등)을 대체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서의 구조적 체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정서들을 더 적은 수의 전형(Prototype)으로 축약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기본 정서에 관한 연구들(Ekman 등, 1987; Fehr, Russell, & Ward, 1982; Fromme, & O'Brien, 1982; Izard, 1987; Clore, Ortony, & Foss, 1987; Plutchik, 1980; Russell, 1980, Schwartz, & Weinberger, 1980; Storm, & Storm, 1987; Tomkins, 1984 등)과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특정한 정서적 반응이 유발되며, 이들의 기능적 특성은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들(Lazarus, 1966; Mandler, 1980b; Oatley와 Johnson-Laird, 1987; Ortony, 1988; Ortony, Clore, & Collins, 1988; Plutchik, 1980, 1984; Weiner, 1980 등)로 연구의 초점을 변화시켰다.

기본 정서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자들마다 약간씩 다른 기본 정서의 유형을 제안하나, 대체적으로 정

서 분류의 수준에 따라 위계적으로 묶여질 수 있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비교적 소수의 정서 유형을 제안한 Ekman 등(1987)은 안면표정 사진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을 토대로 행복감(Happiness), 놀람(Surprise), 슬픔(Sadness), 공포(Fear), 혐오(Disgust), 분노(Anger)의 6가지 정서에 대한 판단이 10개의 상이한 문화권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Oatley 등(1987)은 Ekman 등(1978) 등의 연구를 개관하며, 놀람(Ekman)/흥미(Izard) 등의 각성(Arousal)과 관련된 정서 유형은 다른 정서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행복감, 슬픔, 공포, 혐오, 분노의 5가지 정서 유형으로 보다 축약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외의 다른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정서 유형은 Ekman 등이 제안한 정서 유형을 더 세분화시킨 것들이다. 예를 들어 Fromme 등(1982)은 행복감을 기쁨(Joy)과 만족(Satisfaction)으로 세분화하고, 놀람대신 고양(Elation)을, 그리고 혐오를 기본정서에서 삭제하고 경악(Shock)과 절망(Resignation)을 삽입하여, 8가지의 기본 정서를 제안하며, 비슷하게 Plutchik(1980)은 놀람이라는 각성관련 정서를 기대(Expectation)와 놀람으로 세분화하고, 수용(Acceptance)을 첨가하여, 8개의 기본 정서를 제안하였다. 또한 Izard(1978)와 Tomkins(1984) 등은 관심(Interest)과 괴로움(Distress), 그리고 부끄러움(Shame)등을 첨가하여 9가지의 기본정서를, Russell(1980)은 각성관련 정서를 각성, 졸림(Sleepiness)의 2가지로 구분하고, 쾌/불쾌관련 정서를 괴로움, 불쾌(Displeasure), 우울(Depression), 기쁨, 흥분(Excitement)으로 나누어 8가지의 기본정서를 제안하였다. 다른 연구자들도 대부분 이런 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그리고 각성관련 정서의 기본특성에서, 경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정서를 보다 세분화한 기본 정서를 제안하였다.

Ekman이나 Plutchik 등은, 여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들이 제안한 정서유형들이 여러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생물학적으로도 종특유의 반응양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기본 정서임을 주장하나,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기쁨과 부정적 측면에서의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등이 구

분된다든 점에서 대체적인 일치를 보이고 있다(각성관련 정서에 대해서는 이를 기본 정서로 포함시키느냐 하는 점에서는 이견(Oatley 등, 1987; Averill, 1975)이 있다). 이렇게 연구자들 사이에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재료 및 방법론 상의 차이를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연구자들이 제안한 정서 유형들이 상호 배타적인 유형이라기 보다는, 단지 분류 단위를 어느정도나 세분화시키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 정서의 수가 몇개이나에 대한 논의는 본질적인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설명 및 예언의 효율성에 의해 정서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각각의 정서들이 어떤 선행조건에 의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정서적 반응의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쪽으로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런 측면의 연구들은, 서로 중복되기는 하지만, 다시 정서를 성격/적용/동기 등과 연결시켜, 정서의 적용가치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Izard, 1982; Lazarus, 1966, 1968; Plutchik, 1980, 1984; Tomkins, 1984 등)과 특정 정서반응/평가를 특징지우는 특정 상황/내적 상태를 형식화하는 연구들(Frijda, 1986, 1988; Frijda, Kuipers, & ter Schure, 1989; Oatley 등, 1998; Ortony, 1988; Pfeifer, 1988; Weiner, 1982 등)로 나누어 볼 수 있다. Lazarus는 정서의 기능을 적응행동을 위한 상황/자극판단 기제로 보고 자극/상황의 위협여부와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에 따라 정서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대응되는 대처행동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Plutchik도 그가 제안한 8가지 정서에 대응되는 성격/행동/방어기제의 유형을 구분하고, 정서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적응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한편 Izard, Tomkins 등은 정서체계가 기본적으로 동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토대로 한 정서의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서의 분류체계와 관련하여서, 이들과는 약간 상이한 접근이 제안되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특정한 정서가 어떤 선행조건이나 제약하에서 나타나는가를 형식화시킴으로써, 정서

적 평가나 반응을 계산주의 모형내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약간의 상이점들은 있으나, 이들이 가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정서적 반응(그 속에 함의된 자극이나 상황에 대한 가치평가)이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실생활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의 우선순위(Priority)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위계적 계획(Plan)을 수립하는데 조정자(Regulator)의 역할을 하며, 상황 변화나 현 계획수행의 적절성을 탐지(Monitoring)하여, 계획의 변화를 필요로 할 때 현재의 정보처리과정을 차단(Interrupt)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이다(Frijda, 1987; Mandler, 1982, 1985; Oatley, 1987; Oatley 등, 1987; Simon, 1982). 따라서 정서의 이런 통제기능을 형식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정한 정서가 어떤 선행조건에 의해 나타나는가에 관한 산출규칙(Production Rule)을 기술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아직은 기술적인 수준이지만 정서적 반응에 관한 분류 규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중에는 정서적 반응이 야기되는 조건들을 Weiner의 모형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Dyer, 1983, 1987; Ortony, 1988; Pfeifer, 1988 등). Weiner는 정서적 반응이 야기되는 인과적 조건/속성들을, 그의 동기이론과 연관시켜, 정서반응의 대상(Target), 관련상황의 원인(Locus of Causality),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의 3가지로 나누고, 이들 속성의 결합과 정서 상태(쾌/불쾌)의 조합에 의해 각기 다른 정서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1982). 예를 들어 사건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대상도 타인이며, 사건의 통제소재가 타인에게 있는 부정적 정서는 분노이고, 원인은 타인이나 환경이지만 대상은 자신이고 통제 불능인 정서는 애석함(Pity)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런 Weiner의 분류체계에 따라 Pfeifer는 정서적 반응에 대한 산출규칙을 형식화하고 각각의 정서 반응 주체자의 내적 상태(동기 등)와 연관시켜 추단통값(Heuristic Value)을 산출하고, 목표행동의 산출규칙을 계산해 내는 인공지능 모형, FEELER(a Framework for Evaluation of Events and Linkages into Emotional Responses)를 제안하였다. Dyer(1983)도 유사한 정서반응에 관한 산출규칙을 자연언어의 이해 모형,

BORIS와 OpEd에 적용하였다. 그밖에 다른 연구자들(Abelson, 1983; Oatley 등, 1987; Ortony 등, 1988; Sloman & Croucher, 1981; Frijda & Swagerman, 1987; Toda, 1982)도 유사하거나 약간씩 다른 산출규칙에 따른 정서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근에 정서적 반응 및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정서 기능에 관한 계산주의 모형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반응이나 처리과정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 민감하게 나타나기 때문에(Frijda & Swagerman, 1987; Oatley 등, 1987; Ortony, 1988; Weiner, 1982 등), 정서 반응/평가를 위한 산출규칙의 형식화에 앞서, 우리 문화권내에서의 정서적 반응/어휘를 토대로 한 정서의 분류체계에 관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아직 정서 반응이나 정서관련 어휘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연구는 일차적으로 우리말의 정서관련 어휘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탐색해 보고, 그 결과가 선행 연구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정서의 산출규칙 생성에 대한 Weiner의 모형에 맞게 정서유목들이 분류되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 보았다.

방 법

사전연구

사전 연구는 정서관련어휘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 계획되었다. Russell(1980)의 방법에 따라, 피험자들에게 정서/감정 상태를 기술하는 단어를 자유응답케 하였다.

피험자는 서울시내 소재 K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수강생 1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시문을 통해 상위 범주(예: 나무, 학문분야)명을 제시하고 그범주에 속하는 예들을 가능한 많이 생각해 써서 적게 한 연습시행 후에, 감정/정서 상태의 예들을 가능한 많이 회상하여 적도록 하였다. Russell은 자유회상시간을 2분동안만 주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지시문에서부터 연습과 본 시행까지 대략 10~15분정도가 소요되었다. 자유응답결과는 다음과같은 기준에 의해 선별하였다.

1) 성격/행동특성(예: 쌀쌀하다, 차분하다)이나 상황기술(예: 아름답다 조용하다), 신체상태(예: 오싹한다)등을 나타내는 단어는 제외하고, 심리적인 상태만을 기술하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2) 유사어나 어미변화/부사첨가에 따른 파생어는 동일한 단어로 취급하였다. 단, 유사어라고 하더라도 어감이나 그 강도에서 분명히 다른 상태를 기술하는 단어(예: 슬픔과 서러움.)는 구별하였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선택된 단어중 4명이상 응답한 단어 300여개를 선택하여, 본 실험의 목적과 선별기준을 잘 알고있는 대학원생 2명이 유사어를 묶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72개의 단어를 선택하였다. 선별된 단어는 모두 명사형이나 동명사형으로 바꾸어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피험자

서울시내 소재 K, D, S, T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 121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재료

평가 척도는 사전연구에서 추출한 단어들이 5점의 단극척도로 사용하였으며, 평가대상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정서/감정 상태 기술어휘로서의 적절성 평가 각각의 문항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서/감정상태를 기술하는 문항으로 얼마나 적절한지를 평가.

2) 기분(Mood)상태 평가

최근 2~3일동안 자신의 기분(Mood) 상태를 평가.

3) 시(詩)**에 대한 평가

** 鳥葬(하종오), 화사(서정주), 해일(서정주), 소×한 늪(서정주), 소자 이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기운(서정주), 문둥이(서정주), 소년(김춘수), 주막에서(천상병), 사평역에서(곽재구), 애꾸양반(고은), 땅꾼 도선이(고은), 보리밭 문둥이(고은), 새벽닭(고은), 관여산 복술이(고은), 백일홍(김명수), 어느 어머니(고은)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나 상황을 기술하는 시(詩)중에서 비교적 기술상황을 뚜렷하게 형상화/시각화시킬 수 있고 이해가 쉽다고 생각되는 시 21개를 선택하여, 대학원생 5명의 난이도 평정에 따라 17개를 선택하였다. (부록1참조). 그중 피험자에 따라 무작위로 5개씩 제시하고, 각 시에서 기술하는 상황을 가능한 머리속에 그리면서 시를 읽고난 후 그 느낌을 앞서의 척도에 따라 각각 평정케 하였다. 필요시 동일한 시를 여러번 읽어도 좋다는 지시를 첨가하였다.

각 피험자는 위의 순서에 따라 7가지(적절성, 기분, 5가지의 시)의 평가를 하였다.

자료처리

적절성 평가에서 평균이 3.0이하인 문항과 예비적인 요인 분석결과에서 공유변량(Communality)이 낮은 문항들 19개를 제외하고, 53개의 문항으로 최종 결과처리를 하였다. 제외된 문항의 적절한성 평가 평균은 2.94(SD=.27), 나머지 문항의 평균은 3.48(SD=.29)이었으며, 2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t=27.5, p<.01$). 또한 72개의 문항을 모두 포함하여 요인 분석을 한 결과는 53개의 문항만으로 요인 분석을 한 결과와 요인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53개의 문항으로 17개의 시평가가 합해진 자료(이하 '시평가 자료'로 칭함)와 기분평가 자료 각각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였고, 17개의 시와 기분평가 각각에 대한 평균점수를 원자료로 한 군집분석을 하였다.

결 과

요인 분석

시평가 자료와 기분평가 자료 각각에 대한 요인 분석 방법은 초기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축회전은 베리막스(Varimax)회전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Eigen Value) 1.0이상인 요인은 기분평가 자료의 경우 13개, 시평가 자료의 경우 8개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기본정서에 관한 연구들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각각 2개(Frijda, 1987), 5

개(Oatley 등, 1987), 6개(Ekman, 1987), 8개(Plutchik, 1980 등), 9개(Tomkins, 1984 등)로 나누어 요인분석을 하였다. 참고적으로 고유치의 변화를 토대로 한 Scree Test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분평가 자료의 경우 6개, 시평가자료의 경우 5개로 요인수가 결정된다. 각 요인에 대한 요약울 표1과 같다(구체적인 결과는 부록1 참조).

기분평가의 경우 요인수를 5가지로 고정시켰을 때, 요인 1은 '행복감(.820)', '기쁨(.792)', '포근함(.768)', '즐거움(.754)' 등에 요인 부하량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쾌'의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연구자들이 제안한 기본 정서중 행복감(Ekman 등, Izard, Oatley 등, Plutchik, Tomkins)에 대응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Fromme 등이 기본정서로 기쁨과 만족을 분리하여 제안한 형태는 요인수를 변경시켰을 경우나, 시평가자료의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요인 2는 '두려움(.785)', '짜증남(.683)', '불안감(.581)', '괴로움(.546)' 등에 요인부하량이 높아, 불쾌의 정서중 정서 표현의 방향을 내부로 돌리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내부지향 불쾌'의 차원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공포(Ekman 등, Izard, Oatley 등, Plutchik, Tomkins)에 대응되는 정서로 볼 수 있다. 요인 3은 '분노감(.740)', '경멸감(.660)', '미워함(.652)', '실망감(.547)' 등으로, 정서표현의 방향을 외부로 돌리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외부지향 불쾌'로 명명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연구자들이 제안한 분노와 혐오(Ekman 등, Izard, Oatley 등, Plutchik, Tomkins)에 대응되는 정서로, 다른 연구에서는 이 둘이 구분되어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수의 변화를 주어도 결합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요인 4는 '쓸쓸함(.761)', '그리움(.755)', '슬픔(.620)', '안타까움(.612)' 등에 요인부하량이 높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쾌자극에 대한 상실감이나 수용 욕구를 나타내는 정서특성으로 '수동적 정서'로 명명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연구자들의 슬픔(Ekman 등, Izard, Oatley 등, Plutchik, Tomkins)에 대응되는 정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따분함(.650)', '덤덤함(.334)', '설레임(-.518)', '긴장감(-.543)' 등으로, 기대감과 활성화를 포함하는 '흥분/침잠'

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연구자들의 시대(Plutchik), 고양(Fromme), 관심(Izard, Tomkins) 놀람(Ekman)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요인수를 늘려서 요인 수를 6으로 고정시킬 때는 흥분/침잠의 차원이 세분화되어 흥분/침잠과 안도감(relief)으로 나뉘지며, 요인수를 8로 고정시킬 경우 내부지향 불쾌가 두려움과 짜증으로 나뉘고, 다시 흥분/침잠이 더 세분화되어 흥분/관심, 침잠, 그리고 안도감으로 나뉘게 된다. 한편 요인 수를 9로 하면, 요인수를 8로할 때에 비해서 흥분/관심이 더 세분되어 흥분과 놀람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평가의 경우는 대체로 기

분평가와 유사하나, 요인 수가 세분화될수록 기분 평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권태 등이 나타났으나, 이는 시적 느낌 이외의 평가상황맥락(지루함 등)에 대한 평가자 개인의 내적 변산(오차 변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김완석, 1990; Luce와 Krumhansl, 1988).

전체적으로 기본 평가, 시평가 모두에서 기쁨, 두려움, 분노/미움, 슬픔, 짜증, 활성화에 해당되는 정서적 차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수를 변화시킬 때 다른 연구자들의 제안과는 달리 활성화에 해당되는 차원만이 보다 세분화되는 경향으로 보였다. 또한 이런 활성화의 분화된 요인 구조는 상

표 1. 요인구조에 대한 요약

기 분 평 가				
요인	요인수(5)	요인수(6)	요인수(8)	요인수(9)
요인 1	전반적 쾌 (8.6)	전반적 쾌 (8.5)	전반적 쾌 (8.6)	전반적 쾌 (8.6)
요인 2	내부지향 불쾌(5.6)	수동적 정서 (5.3)	수동적 정서 (5.7)	수동적 정서 (5.6)
요인 3	외부지향 불쾌(5.2)	내부지향 불쾌(5.3)	외부지향 불쾌(4.7)	외부지향 불쾌(4.6)
요인 4	수동적 정서 (5.2)	외부지향 불쾌(5.0)	침잠성 내부 (3.4) 지향 불쾌	침잠성 내부 (3.9) 지향 불쾌
요인 5	흥분/침잠 (2.1)	흥분/침잠 (2.2)	긴장성 내부 (3.1) 지향 불쾌	긴장성 내부 (2.8) 지향 불쾌
요인 6		안도감 (2.1)	? (2.1)	흥분 (2.0)
요인 7			흥분 (2.1)	? (1.8)
요인 8			침잠 (1.8)	놀람 (1.8)
요인 9				침잠 (1.8)
설명량(%)	50.1	53.6	59.3	61.8
시 평 가				
요인	요인수(5)	요인수(6)	요인수(8)	요인수(9)
요인 1	수동적 정서 (9.2)	수동적 정서 (9.0)	수동적 정서 (9.2)	수동적 정서 (9.2)
요인 2	전반적 쾌 (9.0)	전반적 쾌 (9.0)	전반적 쾌 (8.9)	전반적 쾌 (8.9)
요인 3	내부지향 불쾌(4.7)	내부지향 불쾌(4.2)	내부지향 불쾌(4.4)	내부지향 불쾌(4.5)
요인 4	외부지향 불쾌(4.0)	외부지향 불쾌(4.1)	외부지향 불쾌(3.7)	외부지향 불쾌(3.6)
요인 5	흥분/침잠 (1.3)	흥분/침잠 (2.1)	관심 (1.6)	관심 (1.6)
요인 6		관심 (1.5)	수용/거부 (1.4)	수용/거부 (1.4)
요인 7			수용/거부 (1.4)	권태 (1.4)
요인 8			권태 (1.4)	흥분/침잠 (1.3)
요인 9				수용적 정서 (1.1)
설명량(%)	54.1	56.4	60.5	62.4

* 단, () 은 고유치(Eigen Value)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문과 부록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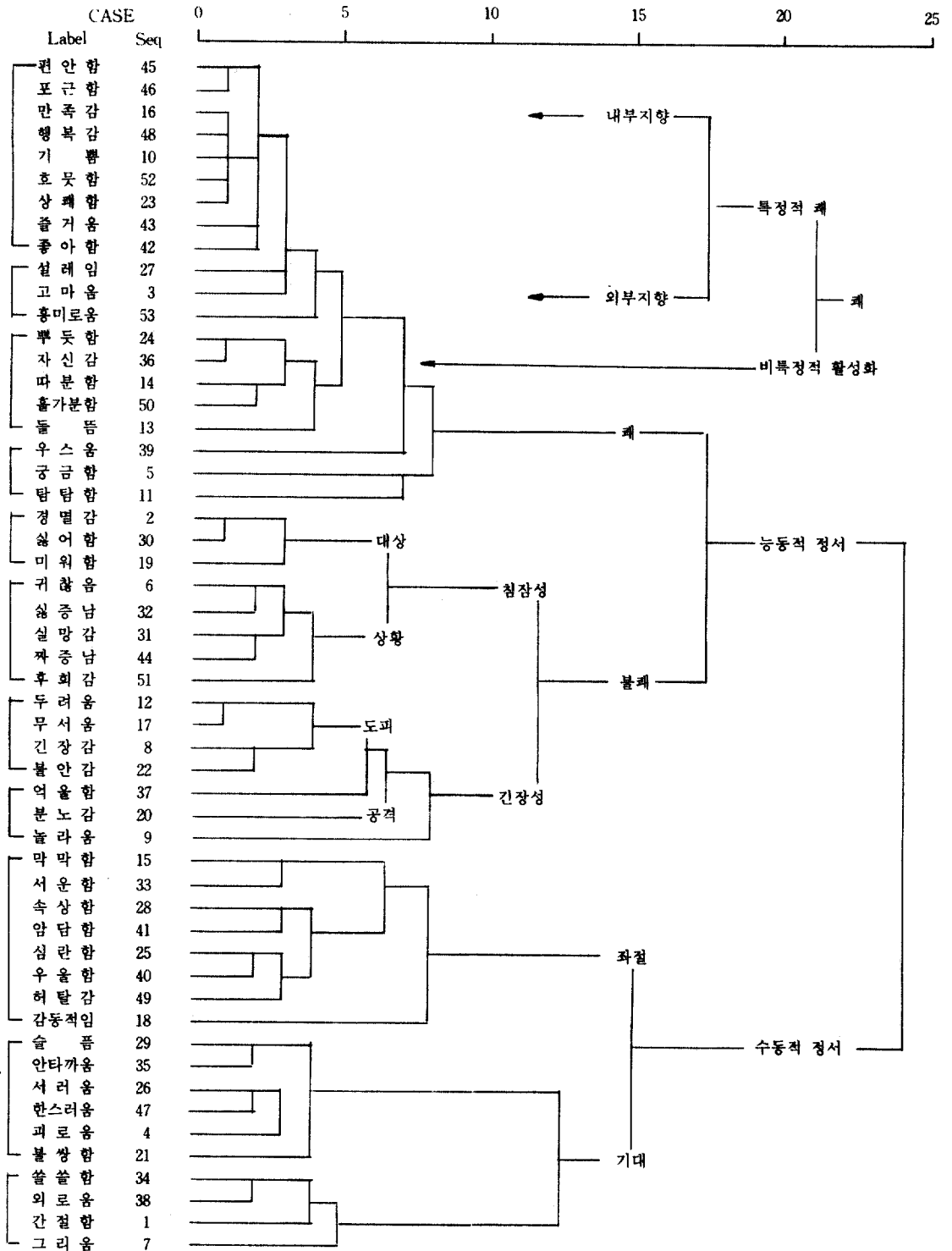


그림 1. 군집분석 결과에 대한 Dendrogram

당히 불안정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요인들이 안정된 정서적 구조를 반영하기 보다는 오차변량때문에 나타나는 허구적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Luce 와 Krumuansl, 1988). 따라서 본 분석은 Ekman 등(1987)의 제안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Ekman 등(1987)뿐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일관성있게 나타나는 혐오에 대한 독립된 차원이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런 현상이 본 연구의 재료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우리의 문화권에서 혐오/미움과 분노가 크게 구분되지 못하는 것인지를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또한 짜증에 대한 차원이 추출된 점도 본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런 점들을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기쁨, 두려움, 분노/미움, 슬픔, 활성화의 차원은 요인수의 변화나 평가재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군집 분석

앞서 언급한 군집분석을 통해, 각각의 하위 정서들이 어떻게 위계적으로 군집화되는지를 알아 보았다. 더불어서 각각의 정서들이 군집화되는 준거를 탐색해보므로써, Weiner의 모형이 타당한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군집분석을 위해 기분평가와 각 시에 대한 평가의 평균을 구해, 이들 평균값을 토대로 각각의 항목들 사이의 거리를 Euclidian Distance로 구하고, 군집화의 기준은 집단내 평균 결합법(Within Average Linkage Method)를 사용하였다. 군집분석결과의 Dendrogram은 그림 1과 같다(군집간 군집체계표와 결합의 계수는 부록 2참조).

군집분석 결과,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에 따라 기쁨/분노/두려움/짜증 등의 능동적(Active) 정서와 슬픔/괴로움/절망 등의 수동적(Passive) 정서로 크게 구분이 된다. 이런 결과는 Averill(1975)과 Weiner(1982)의 제안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능동적 정서는 정서의 상태에 따라 쾌 정서와 불쾌 정서로 구분이 되고, 쾌 정서는 비특정적 활성화와 분명한 경험의 질을 갖고 있는 정서를 나누어지며, 비특정적 활성화는 다시 안도감(해방감)(뿌듯함, 홀가분함, 들뜸 등)과 흥분/침잠(궁금함, 덤덤함 등)

으로, 특징적 정서는 다시 외부지향(설레임, 고마움, 흥미로움 등)과 내부지향(행복감 기쁨 등)으로 나누어 진다.

한편 능동적인 불쾌 정서는 정서의 강도에 따라 침잠성 불쾌와 긴장성 불쾌로 나누어 지며, 침잠성 불쾌는 특정대상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상황을 지향하느냐로 구분이 된다. 한편 긴장성 불쾌는 행동화 경향성의 방향에 따라 대상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정서(두려움 등)와 대상으로 향하는 정서(분노 등)로 구분이 된다. 한편 수동적 정서는 기대(Expectation)의 수준과 관련하여, 체념/침울과 비애, 그리고 외로움/그리움으로 구분이 된다.

이상의 군집분석 결과는, Weiner의 인과 조건 중 통제 가능성과 목표대상에 따른 정서의 분화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인(통제)소재는 목표대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서를 대상을 향해 발산하느냐, 아니면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느냐의 방향이 새로운 준거로 나타났다. 또한 군집분석 결과들은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들보다 좀더 세분된 정서의 유형을 보여 주었다. 즉 대체적으로, 군집이 기쁨, 두려움, 분노/미움, 짜증, 슬픔, 그리고 각성으로 구분되어, 요인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나, 짜증이 경멸과 짜증/싫음으로, 슬픔/괴로움이 절망과 슬픔, 그리고 그리움/간절함으로 세분화된 결과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자료에 대한 요인 분석과 군집분석 결과, 정서의 분류 유목에서는 Ekman 등과, 정서의 인과 조건에서는 Weiner의 제안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요인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경멸의 정서가 군집분석 결과 짜증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됨을 보였으며, Weiner의 원인(통제) 소재는 독립적인 분류조건으로 추출되지 않았다. 대신에 Weiner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정서의 방향에 대한 준거가 유용한 하나의 준거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연구자들의 제안중 고양/침잠/이완/기대 등은 본 연구나 Ekman의 연구 결과와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집분석에서 나타났듯, 본

석단위의 추상화 수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정서의 분류유목에 활성화/각성을 포함 시켜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정서의 분류유목에 활성화와 관련된 개념을 상정하고 있으나, Averill(1975)과 Oatley 등(1987)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결과는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전자의 입장을 일관성있게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유보할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활성화관련 정서의 내용이 불안정하다는 점도 있지만, 활성화 수준을 기본 정서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각각의 정서들이 다시 활성화 수준에 따라 그 강도가 세분화되므로 따로 분류유목에 삽입시킬 필요가 없다는 Oatley 등의 지적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후에 정서적 평가에 대한 산출규칙 모형의 개발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는 이론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는 현상은 선행연구뿐 아니라 본 연구의 요인 분석과 군집분석 결과 모두에서 꽤 정서보다는 불쾌 정서가 훨씬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정서에 대한 차단 가설(Interrupt Hypothesis; Mandler, 1975, 1987)과 관련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차단 가설에 따르면, 정보처리과정중에 현재의 계획수행이 목표에 적절하게 접근하고 있지 못하거나, 상황의 변화때문에 현재의 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현재 진행중인 작업기억내의 작업을 차단하고 주의를 전환시키는데 정서적 평가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의 변경은 현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그 정서적 평가는 부정적이며, 따라서 계획변경의 전략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현재의 계획수행이 만족스럽다면, 현 상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고, 따라서 현재의 계획대로 계속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Mandler(1987)는 이와 유사한 논리에 따라 도식적합 이론(Schema Congruity Theory)을 제안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연구자들(Frijda, 1987; Frijda & Swagerman, 1988; Oatley 등, 1987; Pfeifet, 1988 등)이 정서의 평가/차단/조정 기능에서 동기체

계와 관련된 행동화로의 변환 규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분석이 되지 않았지만, 시에 대한 정서적 평가 결과와 시의 구조적/의미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혀 볼 필요성을 요구된다. 본 분석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에 대한 정서적 평가점수의 산포도가 자신의 기분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포도 보다 크지 않아, 각 시에 대해 피험자간 일치도가 낮지않음을 시사했다. 또한 요인분석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아직 선행연구들이 없기는 하지만, 기존의 텍스트와는 다른 유형의 텍스트라는 점에서도 연구재료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시가 갖는 독특한 정서적 활성화의 기능을 이용하여 글의 이해과정에서 정서적 활성화와 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몇가지 시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와 표본 추출의 대표성에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 또한 시에 대한 평가의 자료구조가 부분적으로 반복평가기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구조조건을 완전히 갖추고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추후에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서의 반복검증이 요구되는 점이기도 하나, 기본 평가와 시평가라는 상이한 평가대상에 대해서, 요인수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분석방법의 차이에 대해서도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또한 선행연구들과 어느정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성과 대표성을 어느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의철 (1981). 심리학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Abelson, R. P. (1983). Whatever became of Consistency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54.
- Abelson, R. P., & Sermat, V. (1962). Multi-dimensional scalings of facial expressions. *Jour-*

- 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3, 546-554.
- Clore, G. L., Ortony, A., & Foss, M. A. (1987).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the affective lexic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751-766.
- Dyer, M. G. (1983). *In-depth Understanding*. Cambridge: The MIT Press.
- Dyer, M. G. (1987). Emotions and the computations: Three computer models. *Cognition and Emotion*, 1, 323-347.
- Ekman, P., Friesen, W. V. al(1987). Universal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judgements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712-717.
- Engen, T., Levy, N., & Schlosberg, H. (1958). The dimensional analysis of new series of facial expres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5, 454-458.
- Fehr, B., Russell, J. A., & Ward, L. M. (1982). Prototypicality of emotions: A reaction time study. *Bullertin of Psyxhonomic Sociely*, 20, 253-254.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jda, N. H. (1987). Emotion, cognitive structure, and action tendency. *Cognition and Emotion*, 1, 115-144.
- Frijda, N. H., & Swagerman, J. (1987). Can computer feel?: Theory and design of an emotional system. *Cognition and Emotion*, 1, 235-258.
- Frida, N. H., Kuipers, P., & ter Schure, E. (1989). Relations among emotion, appraisal, and action rea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12-228.
- Fromme, D. K., & O'Brien, C. S. (1982). A dimensional approach to the circular ordering of the emotion. *Motivation and Emotion*, 6, 337-363.
- Izard, C. E. (1978). Emotions as motivations: An evolutionary-development. In R. A. Dienstbier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Izard, C. E. (1982). Measuring emotions in human development. In Izard, C. E. (Ed.), *Measuring Emotions in Infants and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usinen, J. (1969). The affective and denotative structures of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181-188.
- Lazarus, R.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Prooess*. NY: McGrawHill.
- Lazarus, R. S. (1968). Emotions and adapt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relation. In W. J. Arnold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6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Mandler, G. (1975). *Mind and Emotion*. NY: John Wiley & Sons.
- Mandler, G. (1980a). Recognizing: The judgment of previous occurrence. *Psychological Review*, 87, 252-271.
- Mandler, G. (1980b). The generation of emotion: A psychological theory. In R. Piutchnik & H. Kellerman (Eds.), *Theories of Emotion*, NY: Academic Press.
- Mandler, G. (1982). The structure of value: Accounting for taste. In M. S. Clark, & S. T. Fiske (Eds.), *Affect and cognition*. Hillsdale: LEA.
- Miron, M. S. (1969). What is it that is being differentiated by the semantic differenti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189-193.
- Oatley, K. (1987). Editorial: Cognitive science and the understanding of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1, 209-216.
- Oatley, K., & Johnson-Laird, P. N. (1987). Toward a cognitive theory of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1, 29-50.
- Ortony, A. (1988). Are emotion metaphors conceptual or lexical? *Cognition and Emotion*, 2, 95-104.
- Ortony, A., Clore, G. L., & Collins, A. (1988).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good, C. E. (1964).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in the comparative study of cultures. *American Anthropologist*, 66, 171-200.
- Osgood, C. E. (1969). On the why and wherefores of E. P. and 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194-199.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feifer, R. (1988).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of emotion. In V. Hamilton, G. H. Bower, & N. H. Frijda (Eds.), *Cognitive Perspectives on Emotion and Motivation*. Norwell:Kluwer Academic Publishers.
- Plutchik, R. (1980). *Emotion: A psychoevolutionary synthesis*. NY:Harper & Row.
- Plutchik, R. (1984). Emotions: A general psychoevolutionary theory. In K. R.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Hillsdale, NJ:LEA.
- Pribram, K. H. (1984). Emotion: A neurobehavioral analysis. In K. R.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Hillsdale, NJ:LEA.
- Russell, J. A. (1979). Affective space is bipola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45-356.
- Russell, J. A. (1980). A circumplex model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61-1178.
- Schlosberg, H. (1954). Three dimensions of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61, 81-88.
- Schwartz, G. E., & Weinberger, D. A. (1980). Patterns of emotional responses to affective situations: Relations among happiness, sadness, anger, fear, depression, and anxiety. *Motivation and Emotion*, 4, 175-191.
- Simon, H. A. (1967). Motivational and emotional controls of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74, 29-39.
- Simon, H. A. (1982). Comments. In M. S. Clark, & S. T. Fiske (Eds.), *Affect and Cognition*. Hillsdale:LEA.
- Sloman, A., Croucher, M. (1981). Why robots will have emotions. *Proceedings IJCAI-81*, 197-202.
- Storm, C., & Storm, T. (1987). A taxonomic study of the vocabulary of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805-816.
- Toda, M. (1982). *Man, Robot, and Society: Models and Speculations*. Boston:Martinus Nijhoff Publishing.
- Tomkins, S. S. (1984). Affect Theory. In K. R.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Hillsdale, NJ:LEA.
- Weiner, B. (1980). A cognitive (attribution)-emotion-action model of motivated behavior: An analysis of judgement of help-gi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86-200.
- Weiner, B. (1982).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causal attributions. In M. S. Clark, & S. T. Fiske (Eds.), *Affect and Cognition*. Hillsdale:LEA.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부록 1-1. 기본평가의 요인분석(요인수 : 5)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h^2
행복	감		.820747
기쁨			.792699
포근	함		.768658
즐거움	음		.754694
편안	함		.751621
상쾌	함		.750591
만족	감		.748607
흐뭇	함		.736584
뿌듯	함		.685526
감동	적	임	.629491
흥미	로	용	.599380
종아	스	함	.550361
우아	스	음	.516306	.400
고상	마	음	.473261
들떠		음	.472317
출가	분	함	.463249
자신	신	감	.456	-.410394
놀라	라	음	.416	.321288
두려	우	음	.	.758639
짜증	증	남	.	.683612
불안	안	감	.	.581501
귀찮	찮	음	.	.575	.310	.	.	.495
우울	울	함	.	.555	.	.362	.	.587
괴로	로	음	.	.546	.	.347	.	.494
후회	회	감	.	.514325
심란	란	함	.	.498	.	.300	.	.508
압답	답	함	.391	.478	.330	.	.	.574
무서	서	음	.	.470339
막막	막	함	.357	.451469
분노	노	감	.	.	.740	.	.	.594
경멸	멸	감	.	.	.660	.	.	.445
미워	워	함	.	.	.652	.	.	.508
억울	울	함	.	.	.648	.	.	.541
싫어	어	함	.	.315	.620	.	.	.512
한스	스	음	.	.	.577	.352	.	.469
실망	망	감	.	.316	.547	.	.	.464
싫증	증	남	.	.375	.535	.	.	.534
속상	상	함	.	.350	.502	.353	.	.579
속타	탈	감	.	.337	.405	.	.	.349
쓸쓸	쓸	함761	.	.672
그리	리	음755	.	.594
외로	로	음744	.	.654
슬픔	픔	음	.	.375	.	.620	.	.652
안타	까	음	.	.	.316	.612	.	.543
서러	움	음	.	.	.422	.607	.	.606
간절	함	음539	-.323	.417
서운	함	음	.	.	.418	.475	.	.478
궁금	함	음	.	.	-.342	.429	.	.523
따분	분	함	.	.326	.	.	.650	.537
덤덤	함	음334	.159
불쌍	함	음304	.292
설레	임	음	.339	.	.	.	-.518	.497
긴장	감	음	.	.485	.	.	-.543	.539
고유	치		8.644	5.578	5.203	5.026	2.119	26.571
설명	량 (%)		16.3	10.5	9.8	9.5	4.0	50.1

(단 요인 부하량이 .30보다 적은 경우는 ‘.’으로 표시).

부록 1-2. 기본평가의 요인분석(요인수 : 6)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h^2
행복	.805749
기쁨	.787701
포근함	.780678
편안함	.755624
즐거움	.751697
상쾌함	.740593
호뭇함	.734593
만족감	.720647
부듯함	.674527
감동적임	.639497
흥미로움	.597382
좋아함	.561378
우수함	.554462
늘뜸	.482334
늘라움	.455	.	.311	.	.	-.324	.417
자신감	.427	.	-.401423
쓸쓸함	.	.794690
외로움	.	.777662
그리움	.	.751623
슬픔	.	.664	.331653
서러움	.	.614	.	.399	.	.	.607
안타까움	.	.585	.	.	-.317	.	.583
간절함	.	.507	.	.	.	-.334	.456
서운함	.	.496	.	.398	.	.	.479
궁금함	.	.376	.322	-.351	.	.	.523
두려움	.	.	.772640
짜증남	.	.	.644	.310	.	.	.619
불안감	.	.	.606502
긴장감	.	.	.550	.	-.432	.	.573
귀찮음	.	.	.540	.338	.	.	.501
괴로움	.	.365	.535494
우울함	.	.405	.515587
후회감	.	.	.502	.	.	.314	.455
암담함	.378	.300	.467	.318	.	.	.578
심란함	.	.329	.460	.	.	-.317	.552
무서움	.	.	.450357
막노동감	.325	.	.421500
분노감732	.	.	.599
싫어함656	.	.	.554
경미감656	.	.	.446
미위함656	.	.	.514
억울함604	.	.	.599
싫증남	.	.	.319	.577	.332	.	.582
실망감570	.	.	.535
한스러움	.	.365	.	.518	.	-.407	.577
속상함	.	.373	.333	.480	.	.	.584
허탈감	.	.	.334	.425	.	.	.400
따분함710	.	.565
덤덤함356	.333	.311
설렘	.322	.	.	.	-.563	.	.503
고마움	.421505	.466
흘리기493	.459
분할	-.325	.363
고유치	8.477	5.251	5.249	5.080	2.261	2.071	28.389
설명량(%)	16.0	9.9	9.9	9.6	4.3	3.9	53.6

부록 1-3. 기본평가의 요인분석(요인수 : 8)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h^2
행복	.849775
포근함	.800732
만족감	.798687
편안함	.778660
상쾌함	.773624
즐거움	.759699
흐뭇함	.757635
기쁨	.736729
부듯함	.628566
흥미로움	.591472
감동적임	.582502
활기차함	.566	-.432	.	.	.600
좋아함	.676517
자신감	.421303	.482
외로움	.	.811709
쓸쓸함	.	.808717
슬픔	.	.697660
그리움	.	.675313	.	.644
서러움	.	.655	.362678
안타까움	.	.607598
서운함	.	.574	.371534
우울함	.	.496	.	.456609
괴로움	.	.421	.	.368	.318500
심란함	.367	.384	.	.378	.	.313	.	.	.572
막막함	.349	.372	.	.	.324	.	-.317	.	.592
분노감	.	.	.758660
미워함	.	.	.651517
억울함	.	.	.650640
경멸감	.	.	.630466
심어함	.	.	.594	.446560
실망감	.	.	.573576
한스러움	.	.372	.514	.	.	.376	.	.	.582
속상함	.325	.417	.439601
허탈감	.	.303	.390	.310429
짜증남705704
후회감623573
심증남	.	.	.494	.540592
따분함515388	.611
귀찮음485503
긴장감759681
두려움402	.635655
불안감598540
공부함	.	.334	-.312	.	.458533
무서움	.	.315	.	.	.453	.334	.	.	.486
담담함	.405	.358	.330	.	.418640
우스움	.385611	.	.	.593
불쌍함536	.	.	.414
놀라움	.319512	.	.	.471
설레임759	.	.699
간절함	.	.375	.	.	.334	.	.472	.305	.579
틀림	.371	.	.	.405	.	.	.471	.	.591
덤덤함705	.524
고마움	.463472	.488
고유치	8.563	5.685	4.664	3.444	3.006	2.146	2.091	1.801	31.40
설명량(%)	16.2	10.7	8.8	6.5	5.7	4.0	3.9	3.4	59.2

1-4. 기분평가의 요인분석(요인수 : 9)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h^2
행복	감	.845785
만족	감	.800695
포근	함	.800732
편안	함	.778668
상쾌	함	.772627
즐거움	함	.757707
호뭇	함	.757661
기쁨	함	.737729
뿌듯	함	.636354640
흥미	움	.596374	.	.548
감동	임	.591550
훌륭	함	.563	-.390	.	.	.600
좋아	함	.561539
고마움	움	.458	-.405	.408	.486
자신감	감	.424313	.500
안담	함	.405	.353	.321	.	.341642
의로	움	.	.818726
쓸쓸	함	.	.815737
그리움	움	.	.691318663
슬픔	움	.	.689	.	.303671
서러움	움	.	.635	.401696
안타	움	.	.596	.304600
서운함	함	.	.545	.422604
우울함	함	.	.495	.	.493617
속상함	함	.322	.416	.412	.306628
피로	움	.	.408	.	.370	.340520
막막함	함	.344	.373368	.	.608
분노	감	.	.	.760662
억울함	함	.	.	.689653
미안함	함	.	.	.682564
경멸감	감	.	.	.623467
심어	함	.	.	.581	.470575
한스러움	움	.	.356	.560322	.	.	.600
실망	감	.	.	.528594
짜증	남735707
후회	감603576
싫증	남	.	.	.464	.571595
귀찮음	움545525
따분함	함545409	.624
심란함	함	.359	.387	.	.419580
긴장	감777700
두려움	움405	.651688
불안	감544546
궁금	함	.	.335	.	.	.519549
무서움	움	.	.316	.	.	.389	.	.	.329	.	.486
설렘	임781745
들뜸	함	.373	.	.	.367	.	.475591
간절함	함	.	.378	.	.	.410	.416587
우수	움	.392604	.	.	.625
불쌍	함592	.	.	.512
허탈	감	.	.316	.	.376	.	.	-.449	.	.	.628
늘라	움	.329585	.	.568
덜덜	함704	.524
고유치		8.559	5.590	4.606	3.890	2.775	2.010	1.795	1.763	1.761	32.748
설명량 (%)		16.1	10.5	8.7	7.3	5.2	3.8	3.4	3.3	3.3	61.8

부록 1-5. 시 평가의 요인분석(요인수 : 5)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h^2
슬		품	.776722
쓸	쓸	합	.758624
안	타	까	.741611
서	러	움	.738625
우	울	움	.707571
외	로	움	.705556
한	스	러	.700610
괴	로	움	.665	.	.351	.	.	.631
간	절	함	.648497
불	쌍	함	.647572
속	상	함	.643	.	.	.301	.	.586
심	란	함	.634548
서	운	함	.629495
그	리	움	.615581
암	담	함	.601568
허	탈	감	.576454
막	막	함	.513402
후	회	감	.477	.	.	.326	.	.359
억	울	함	.423	.	.	.352	-.329	.461
궁	금	함229
기		쁨	.	.815711
행	복	감	.	.800714
호	못	함	.	.784679
상	쾌	함	.	.751649
즐	거	움	.	.747627
뿌	듯	함	.	.745569
만	족	감	.	.740607
편	안	함	.	.739666
종	아	함	.	.732547
포	근	함	.	.731680
고	마	움	.	.639450
자	신	감	.	.607425
홍	미	로	.	.594422
설	레	임	.	.583420
홀	가	분	.	.566427
들		뜸	.	.535	.369	.	.	.428
감	동	적	.399	.455	.	-.359	.	.508
무	서	움	.	.	.833	.	.	.735
두	려	움	.	.	.809	.	.	.690
긴	장	감	.	.	.682	.	.	.551
늘	라	움	.	.	.617	.	-.333	.523
불	안	감	.337	.	.597	.	.	.563
분	노	감	.	.	.547	.403	.	.606
미	위	함	.	.	.544	.342	.	.455
경	멸	감	.	.	.533	.458	.	.543
심	증	남686	.	.538
실	망	감	.315	.	.	.637	.	.531
짜	증	남623	.	.515
싫	어	함	.	.	.438	.607	.	.597
귀	참	음552	.	.388
우	스	움	.	.353	.	.463	.	.413
따	분	함336	.600	.515
덤	덤	함379	.267
고	유	치	9.154	9.016	4.708	3.963	1.823	28.664
설	명	량 (%)	17.3	17.0	8.9	7.5	3.4	54.1

부록 1-6. 시 평가의 요인분석(요인수 : 6)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h^2
술 품	.782725
쓸 쓸 함	.758634
안 타 까 움	.749636
서 러 움	.739626
우 울 함	.705574
외 로 움	.702559
한 스 러 움	.698617
괴 로 움	.662	.	.333633
괴 불 상 함	.654599
간 절 함	.651521
속 상 함	.636	.	.	.313	.	.	.598
심 란 함	.628548
그 리 움	.611	-.333	.623
서 운 함	.608	.	.	.360	.	.	.510
암 담 한 감	.594	.	.	.307	.	.	.572
허 탈 감	.564456
막 막 함	.501409
행 복 감	.	.806717
기 뽐	.	.803712
호 못 함	.	.783680
권 안 함	.	.760690
상 쾌 함	.	.759661
포 근 함	.	.753699
만 족 감	.	.742608
뿌 듯 함	.	.738570
종 아 함	.	.732547
즐 거 움	.	.730631
고 마 움	.	.633450
자 신 감	.	.604433
설 래 임	.	.587421
출 가 분 함	.	.585458
흥 미 로 움	.	.547441	.531
들 듦	.	.517	.381443
감 동 적 임	.412	.465509
무 서 움	.	.	.813736
두 려 움	.	.	.792692
긴 장 감	.	.	.686575
놀 라 움	.	.	.601	.	.	.339	.562
불 안 감	.325	.	.581564
미 워 함	.	.	.497	.464	.	.	.514
심 어 함	.	.	.366	.691	.	.	.626
실 망 감666	.	.	.550
심 중 남632	.371	.	.549
분 노 감	.	.	.480	.554	.	.	.646
경 멸 감	.	.	.475	.546	.	.	.564
짜 증 남542	.413	.	.515
후 회 감	.446	.	.	.456	.	.	.462
억 울 함	.409	.	.	.445	.	.	.464
따 분 함684	.	-.529
덤 덤 함463	.	.288
귀 참 음415	.441	.	.402
궁 금 함414	.339	.437
우 스 움595	.609
고 유 치	9.037	8.968	4.215	4.067	2.132	1.466	29.886
설명량 (%)	17.1	16.9	8.0	7.7	4.0	2.8	56.4

부록 1-7. 기술평가의 요인분석(요인수 : 8)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h ²
슬 품	.792731
안 타	.755645
서 러	.754641
쓸 쓸	.728683
한 스	.711628
우 울	.701589
불 상	.700648
속 상	.689644
과 로	.685676
외 로	.664593
암 당	.649623
심 란	.630558
간 질	.612660
서 윤	.584	.	.	.403	.	-.434	.	.	.582
허 탄	.581485
막 막	.546377	.	.526
그 리	.538444691
억 울	.484	-.364	.	.553
후 회	.442	.	.	.135493
행 복	.	.810729
기 뽀	.	.798718
호 붓	.	.789713
편 안	.	.772748
상 쾌	.	.767680
포 근	.	.759735
만 족	.	.749622
뿌 듯	.	.738573
즐 움	.	.729649
좋 아	.	.719565
흥 가	.	.612552
고 마	.	.607	-.338	.516
자 신	.	.606447
설 래	.	.582461
흥 미	.	.552	.	.	.424535
들 톱	.	.504	.334504
감 동	.376	.453515
무 서	.	.	.845766
두 러	.	.	.835758
놀 라	.	.	.666	-.309	.636
긴 장	.301	.	.636590
불 안	.359	.	.561572
경 별	.	.	.530	.459566
미 워	.	.	.520	.410516
분 노	.306	.	.510	.369	.	.	-.345	.	.691
심 중753615
실 망701617
짜 증636319	.567
심 어	.	.	.456	.604648
귀 찰467415
우 스601619
넙 넙650	.	.	.508
강 금577	.	.516
따 분579	.573
고 유	9.229	8.908	4.444	3.687	1.614	1.423	1.394	1.379	32.078
설명률(%)	17.4	16.8	8.4	7.0	3.0	2.7	2.6	2.6	60.5

부록 1-8. 기본평가의 요인분석(요인수 : 9)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h ²
술	품	.789731
안	타	.757648
서	까	.744648
쓸	움	.743720
우	함	.704591
한	울	.702625
속	스	.696650
불	상	.691660
외	쌍	.680632
피	로	.670670
암	로	.653625
심	담	.625559
서	란	.601	.	.	.381609
간	운	.586	.	.	.	-.307	.	.	-.328	.353	.705
허	결	.586485
막	탈	.546378	.	.	.526
그	리	.533	.	.	.	-.433692
억	울	.492	-.383559
후	회	.446	.	.	.429493
행	복	.	.822734
편	안	.	.796752
호	못	.	.795713
기		.	.790719
포	근	.	.780736
상	쾌	.	.772680
만	족	.	.749628
즐	거	.	.726660
뿌	듯	.	.718593
쑤	아	.	.716566
홀	가	.	.640565
설	분	.	.595555
고	레	.	.572	-.344	.	.334	.611
자	마	.	.568420	.573
홍	신	.	.544	.	.	.449546
들	로	.	.503	.335563
감	동	.352	.422342	.588
서	적	.	.	.846767
두	움	.	.	.836759
늘	려	.	.	.670640
긴	라	.	.	.636592
불	장	.	.	.560578
경	안	.367	.	.533	.451568
미	별	.	.	.521	.385566
분	위	.309	.	.512	.351	.	-.362693
실	노769644
실	증	.301	.	.	.685625
짜	망653	.	.	.314	.	.	.601
싫	중	.	.	.461	.587652
귀	어479322	.	.429
우	참632629
궁	스574529
따	분311	.	.	.566	.	.	.573
덤	합689	.	.	.570
고	유	9.200	8.924	4.469	3.618	1.632	1.440	1.352	1.324	1.099	33.05
설	명	17.4	16.8	8.4	6.8	3.1	2.7	2.6	2.5	2.1	62.4

부록 2. 군집간 군집체계

Stage	Clusters Cluster 1	Combined Cluster 2	Coefficient	Stage Cluster Cluster 1	1st Appears Cluster 2	Next Stage
1	45	46	.437600	0	0	17
2	16	48	.812400	0	0	4
3	10	52	.845800	0	0	4
4	10	16	.938000	3	2	6
5	12	17	.984300	0	0	29
6	10	23	1.169000	4	0	11
7	24	36	1.297300	0	0	22
8	2	30	1.320200	0	0	24
9	34	38	1.393000	0	0	31
10	14	50	1.433300	0	0	22
11	10	43	1.441480	6	0	12
12	10	42	1.743857	11	0	17
13	5	32	1.805900	0	0	29
15	31	44	1.840700	0	0	26
16	25	40	1.932100	0	0	25
17	10	45	2.113094	12	1	21
18	29	35	2.133000	0	0	36
19	26	47	2.204000	0	0	23
20	28	41	2.461100	0	0	32
21	10	27	2.500033	17	0	27
22	14	24	2.731100	10	7	33
23	4	26	2.863267	0	19	30
24	2	19	2.863267	8	0	41
25	25	49	2.975867	16	0	32
26	6	31	3.007400	13	15	34
27	3	10	3.022967	0	21	35
28	15	33	3.111400	0	0	40
29	8	12	3.334900	14	5	37
30	4	21	3.442066	23	0	36
31	1	34	3.550400	0	9	39
32	25	28	3.556480	25	20	40
33	13	14	3.707440	0	22	38
34	6	51	3.794000	26	0	41
35	3	53	3.930494	27	0	38
36	4	29	4.002666	30	18	48
37	8	37	4.618100	29	0	42
38	3	13	4.809631	35	33	43
39	1	7	4.853716	31	0	48
40	15	25	4.953066	28	32	46
41	2	6	4.975529	24	34	49
42	8	20	5.198180	37	0	44
43	3	39	5.830495	38	0	47
44	8	9	5.949439	42	0	49
45	5	11	6.415000	0	0	47
46	15	18	6.612307	40	0	50
47	3	5	7.523372	43	45	51
48	1	4	8.198500	39	36	50
49	2	8	8.557891	41	44	51
50	1	15	9.534740	48	46	52
51	2	3	13.503172	49	47	52
52	1	2	22.726639	50	51	0

韓國心理學會誌 ; 實驗 與 認知

Korean Journal of Experimental and Cognitive Psychology

1990. Vol 2, 118-138

The Structural Analysis of Adjective Meanings: Related to Affective Vocabulary

Mahn-Young Lee and Heung-Choel Lee

Korea University

This is a taxonomic study of the vocabulary of affects in Korea. Many study in other cultures showed that affects can be contracted into 2-9 basic emotions and suggested some criteria of affective attributes. In this study, subjects were asked to rate their mood and korean poems through 72 five-point unipolar scale of affective terms, which have been extracted and filtered in pre-test. The surveyed data was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and we could see results supporting for Ekman's and Weiner's suggestions.